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에 ‘임시 주소’ 부여

행안부, 28일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군·구 명칭 빼고 임시로 사업지구명 표기
앞으로 행정구역 결정되면 시·군·구 명칭 부여

정성학 기자 csh@sbnnews.com

〈속보〉새만금 사업지구에 임시 주소가 부여된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10여년째 행정구역 귀속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주소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소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는 물론 청소, 방범, 소방, 세무 등 행정행위가 곤란해진다.
〈본지 1월15일자 1면, 2면, 3면 보도〉
행정안전부는 2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분쟁에 휘말린 새만금처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임시로 시·군·구 이름을 제외한 채 사업지구명과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도록 했다.
이틀테면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 3’ 등의 식이다. 이후 행정구역이 결

정된다면 사업지구명을 시·군·구명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새만금은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되자마자 그 귀속권 분쟁이 불거져 최근 1·2호를 끝으로 전 구간에 걸쳐 행정구역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분쟁은 곧 간척지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자연스레 정·관·가 안팎에선 새만금권 지자체간 통합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가칭 ‘새만금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 또한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권 광역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도는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끝없는 논의를 거쳐 광역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국 지하도로나 고



무려 10여년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행정구역 귀속권을 놓고 법정 공방전을 펼쳐 온 새만금 방조제 전경. 사진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정다툼이 벌어졌던 1·2호 구간. /정성학 기자

가도로 등도 주소를 부여토록 했다. 옥외에 설치된 버스나 택시 정류장, 승강기나 대피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 시설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물 주소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 순서로 적용해 표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 3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확정된다.
시행일은 6월 9일로 잡혔다. 변경된 주소

는 주민들이 관공서에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주요 공부가 자동으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이나 위급 상황시 보다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이 가능해지고, 특히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처럼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사 새만금 투자

국내 재생에너지사들이 새만금에 설비 제조공장을 짓는다.
고기현 와이에이치에너지 대표와 나윤경 주왕산업 대표는 27일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양총모 청장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산단 입주계약을 맺고 각각 163억 원과 8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에이치에너지는 태양광 모듈과 소형 풍력발전기 등을, 주왕산업은 수배전반과 제어장치 등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각각 올 3월 새만금 공장을 착공해 7월 준공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각각 경기도 파주와 남원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설비분야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정성학 기자



김제 육가공사 9명 추가 확진

610여명 코로나 전수검사 결과

〈속보〉김제시 금구면 한 육가공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집단감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본지 1월27일자 2면 보도〉

전북도는 27일 해당 육가공사 임직원 61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마무리한 결과 이 가운데 동남아 근로자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25일과 26일 사이 일

본인 기술자와 통역사 등 3명이 잇달아 확진되자 전수검사가 추진됐다.
이 가운데 일본인 기술자는 공장시설 정비차 지난 7일 입국해 18일까지 서울에 머물다 김제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맺은 ‘기업인 신속 입국절차’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받았고 입국당시 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에따라 국내 입국전후 감염

됐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순창지역 한 의료기관에선 의료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1,028명으로 늘었다.
앞서 전수검사가 추진된 군산 주한 미공군의 경우 500여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정성학 기자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 5억원 포상

선관위, 설명절 앞두고 집중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펼쳐진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설 인사를 빙자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 위반소지가 커져야 따라 그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행위자는 모두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50배 이하 과태료(최고 3,000만원 이내)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사례 신고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 접수체제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한편, 도내에선 올 4월7일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예정됐다.
내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정성학 기자



전주덕진의원소방연합회, 사회취약계층 나눔 행사

전주덕진의원소방연합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27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덕진의원소방연합회는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사

회 취약계층 9세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점검, 난방기구 안전점검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덕진의원소방연합회는 평소 헌혈봉사, 농촌 일손돕기,

마스크 제조공장 일손돕기, 방역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정인식 연합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원들과 뜻을 모아 위문품을 마련해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안전지킴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전북도, 꽃 팔아주기 캠페인

전북도가 코로나19 파동에 직격탄 맞은 화훼농가를 돕겠다고 나섰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분청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꽃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27일 밝혔다.
모두 3차례에 걸쳐 구입희망 물량을 신청받아 공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가는 1단 기준 장미 1만원, 국화 7,000원, 프리지어 5,000원 등으로 정해졌다.
화훼농가들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성수기 특수를 놓쳐버렸다. 장미의 경우 도매거래량이 작년보다 약 25% 감소하는 등 한층 더 심각한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이웃돕기성금 보내주신 분	
〈장수군 장수읍〉	
장수읍 총계	: 1,940,000
중동마을	340,000
하비마을	200,000
관두마을	400,000
노하마을	450,000
서동마을	470,000
왕대마을	80,000
1월 27일	
♣ ♣ ♣ ♣ ♣	

새전북신문
THE SAJEONBUK SHINJUN

함께 만드는 우리 신문,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으로 전북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다함께 만드는 새전북신문은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황판 / 액자 전문점

동일화랑 · 액자 · 앨범 · 몰딩

고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 동일액자에서 준비하세요

- 각종 액자 제작 전문 도 · 소매
- 사진 인화 사진 출력

▷ 해바라기 사진

▷ 청사과 사진

▷ 메탈액자(알미늄 판)

▷ 디아섹 액자(아크릴)

▷ 휴대폰사진을 액자로

▷ 최고급 거울 제작

중앙성원

세이브존(구,코아백화점)

동일화랑, 액자

시청

오거리

액 자 공 장 (전주시청 → 세이브존 중간사이)
T.063. 282-6444 F.231-6443

골/프/프/렌드
골대터골프

전국 최대 규모
중고 클럽 전문

063) 222-7952
010-3189-795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17-14 (맨하탄빌라 1층)

지구를 살리는
늘 푸른 생각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늘 푸른 생각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탄소운동 첫걸음!
종이컵 줄이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1TV 투데이전북 여름보양식 맛집 방영

진안인삼장어
보약같은 인삼장어탕

남원 남원방면50m 기린봉 부영3차
구)아중역 전주역 전고

단체손님대환영/대형룸완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393 (우아동1가)
063) 245-9290
010-3653-0880